

제 1 교시 국어

1. 상대의 말에 공감하며 반응하는 대화로 ⑦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 미술 시간에 인물화를 그렸는데 점수를 낮게 받아서 우울해.

⑦



- ① 나는 인물화 정말 잘 그리는데, 부럽지?
- ② 점수를 낮게 받아서 정말 많이 속상하겠다.
- ③ 평소에 연습도 안 하면서 점수만 잘 받길 바라니?
- ④ 난 만점 받아서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아.

2. 다음 말하기에서 알 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안녕하세요. 오늘 토의 주제는 ‘우리 지역 축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토의는 축제 프로그램 구성, 관광객 유치 방안,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 ① 토의의 개념을 설명한다.
- ② 토의의 순서를 안내한다.
- ③ 토의 결과를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 ④ 토의 참여자를 청중에게 소개한다.

3.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것은?

- ① 감기 어서 빨리 낳아.
- ② 떡볶기를 같이 만들어 먹자.
- ③ 토요일에 우리 집에 놀러 와도 돼.
- ④ 나는 매콤한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

4. 밑줄 친 단어들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 등굣길에 친구와 만나서 같이 갔다.

- 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낸다.
- ② 놀람, 느낌, 부름, 대답을 나타낸다.
- ③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 ④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5. 밑줄 친 부분이 ⑦에 해당하는 것은?

문장 성분에는 주어, ⑦서술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등이 있다.

- ① 아기가 하품을 했다.
- ② 영수가 신발을 샀다.
- ③ 우리는 과자를 먹었다.
- ④ 민주가 반장이 되었다.

6. 다음과 관련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다.

- ① 창조성
- ② 자의성
- ③ 사회성
- ④ 분절성

7. 다음 규정에 맞게 발음하지 않은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① 꽃을[꼬즐]
- ② 낫이[나지]
- ③ 밖에[바께]
- ④ 웃을[오슬]

8. 다음을 참고할 때, 이어진 문장이 아닌 것은?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연결된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 ① 마당에 꽃이 피었다.
- ② 윤지는 웃었지만 민서는 울었다.
- ③ 이것은 감이며 저것은 사과이다.
- ④ 동생은 초등학생이고 형은 중학생이다.

9. 다음 개요에서 통일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주제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
처음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①
중간	•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②
	• 바른 언어 습관은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 ③
	•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잦은 이뇨 작용으로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진다. ④
끝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

- ① ⑦ ② ⑮ ③ ⑯ ④ ⑰

10. ⑦~⑰에 대한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을 한다. 먼저 머리카락은 각종 노폐물을 배출한다. 수은이나 비소와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에 쌓이면 위험한데, 머리카락은 이러한 성분을 끊임없이 ⑦ 두피밖으로 내보낸다. ⑮ 중금속은 산업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또한 머리카락은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 한 사람의 머리에는 약 십만 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있다. 이 많은 머리카락이 두개골을 감싸 뇌가 받는 충격을 ⑯ 더해 준다. ⑰ 왜냐하면 두피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도록 하여 뇌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 ① ⑦: 띄어쓰기에 어긋나므로 ‘두피 밖으로’로 고친다.
 ② ⑮: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③ ⑯: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줄여’로 바꾼다.
 ④ ⑰: 문장의 호응을 고려하여 ‘만일’로 고친다.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같은 구절을 반복했다.
 ② 청유형 문장을 사용했다.
 ③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다.
 ④ 묻고 답하는 형식을 활용했다.

12.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② 물질주의적 삶을 동경하고 있다.
 ③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④ 떠나온 고향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13. 다음을 참고할 때, 윗글의 끊어 읽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시는 전통적인 3음보의 율격을 계승하였기에 시의 내용을 생각하며 적절하게 세 번씩 끊어 읽는 것이 좋다.

- ① 나 보기 /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 ② 말 / 없이 고이 보내 / 드리우리다 //
- ③ 아름 따라 / 가실 길에 / 뿌리우리다 //
- ④ 사뿐히 / 즈려밟고 / 가시옵소서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⑦ 하루는 밤에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졸려서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하얀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내게 주었습니다.

“옥희, 이거 갖다가 엄마 드리고 지나간 달 밥값이라고, 응.”
나는 그 봉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⑮ 어머니는 그 봉투를 받아 들자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았을 때보다도 더 새하얗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봉투를 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듯이 초조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거 지나간 달 밥값이래.”

하고 말을 하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잠자다 깨나는 사람처럼 “응?” 하고 놀라더니 또 금시에 ⑯ 백지장같이 새하얗던 얼굴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봉투 속으로 들어갔던 어머니의 파들파들 멀리는 손가락이 지전을 몇 장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에 약간 웃음을 띠면서 “후!” 하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다시 어머니는 무엇에 놀랐는지 흠칫하더니 금시에 ⑰ 얼굴이 다시 새하얘지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바라다보니 거기에는 지전 몇 장 외에 네모로 접은 하얀 종이가 한 장 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무슨 결심을 한 듯이 입술을 악물고 그 종이를 차근차근 펴 들고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 안에 [A] 무슨 글이 써어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으나 어머니는 그 글을 읽으면서 금시에 얼굴이 파랬다 발갰다 하고 그 종이를 든 두 손은 이제는 바들바들이 아니라 와들와들 떨리어서 그 종이가 부석부석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그 종이를 아까 모양으로 네모지게 접어서 돈과 함께 봉투에 도로 넣어 반진고리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거니 앓아서 전등만 쳐다보는데 어머니 가슴이 불룩불룩합니다.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

14.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저씨는 나에게 하얀 봉투를 주었다.
- ② 나는 하얀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다.
- ③ 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열지 않았다.
- ④ 어머니는 하얀 봉투를 반진고리에 던졌다.

15.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 ②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된다.
- ③ 인물과 자연환경의 대립이 나타난다.
- ④ 인물의 행동을 통해 심리가 드러난다.

16. ①~④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옥희)’는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사또는 동현 마루에 높이 앓아 분부하였다.

“남원부 변 사또는 악행이 높으니 당장 포박하여 옥에 가둬라!”

변 사또를 옥에 가둔 어사또는 옥중에 갇힌 죄인의 사연을 다 들은 후 죄 없는 사람은 즉시 풀어 주었다. 풀려난 사람들은 기뻐 춤을 추며 어사또의 공덕을 치하하였다.

마지막으로 어사또는 옥을 지키는 형리에게 일렀다.

“춘향이를 칼* 벗겨 대령하라.”

(중략)

춘향이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데, 가는 목에 큰칼 차고 곱던 머리 산발하고 옷자락에는 붉은 헛물을 얼룩지고 그 참혹한 광경은 두 눈 뜨고 차마 보지 못할 지경이었다. 어사또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혹 남에게 들킬세라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물었다.

“분부 들어라. 너는 기생으로서 관의 명령을 어기고 발악 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나? 죽어 마땅하나 내 수청을 듣다면 목숨은 살려 주마.”

기가 막힌 춘향이가 고개를 번쩍 들고,

“초록은 동색이요,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내려오는 사또마다 빠짐없이 명관이로구나.”

한탄하며 말을 이었다.

“어사또는 들으시오. 절벽 위에 우뚝 솟은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 눈이 온들 비가 온들 변하리까? 틀린 소리 마옵시고 어서 바삐 죽여 주소.”

어사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빙긋 웃더니 옥반지를 꺼내 사령에게 주었다.

“이것을 춘향이에게 주어라.”

춘향이 제 앞에 놓인 **옥반지**를 보니, 이별할 때 자기가 이 도령에게 준 바로 그것이었다.

“춘향이는 고개를 들라.”

그제야 춘향이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동현 마루에 높이 앓은 어사또는 어제 저녁 옥문 밖에 왔던 낭군이 분명하였다. 꿈인가 생시인가. 물끄러미 어사또를 바라보는 춘향이 눈에 구슬 같은 눈물이 서려 옷깃을 적시며 조용히 흘러내렸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구나. 어제 저녁 걸인 사위, 어사가 웬 말이냐? 꿈이거든 깨지 말고 생시거든 오늘만 같아라.”

춘향이가 죽을 줄만 알고 울며불며 따라왔던 월매는 울다 웃다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었다.

- 작자 미상, 「춘향전」 -

* 칼: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를 장과 막으로 전개한다.
- ② 의인화된 사물의 일생을 기록한다.
- ③ 실제 경험한 일을 진솔하게 표현한다.
- ④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18.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사또는 변 사또를 옥에 가두라고 분부했다.
- ② 어사또는 형리에게 춘향이를 대령하라고 일렀다.
- ③ 어사또는 눈물을 들킬까 봐 부채로 얼굴을 가렸다.
- ④ 월매는 사위가 어사가 된 것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

19. **옥반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춘향이의 잘못을 드러낸다.
- ② 어사또의 정체를 드러낸다.
- ③ 변 사또의 결백을 밝혀 준다.
- ④ 이 도령의 질투심을 표현한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는 ‘배달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배달 산업이 발달하였다. 이로 인해 배달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심지어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해졌다. 세상이 편해졌다고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⑦ 측면도 있다. 일부 택배 기사들은 빨리 배달하려고 ⑧ 과속을 하거나 신호를 어겨 교통사고가 나기도 한다. 실제로 2012년 안전 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택배 업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가운데 도로 교통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문제는 또 있다. 아침에 분류한 물건을 그날 안에 배달해야 하기 때문에 택배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멈출 수 없다. 2017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은 74시간이다. 일 년이면 3,848시간으로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인당 연간 평균 노동 시간 1,759시간의 두 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택배 기사들은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⑨ 수입이 느는 게 일반적이지만, 택배 기사들은 그렇지 못하다.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가격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유류비, 통신비 등의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택배 기사들은 택배 한 건당 평균 800원 정도를 벌 수 있다. ⑩ 단순 계산해서, 한 달에 약 350만 원 정도를 벌려면 25.3일을 일하면서 하루 평균 170개 가까운 물건을 배달해야 한다. 결국 더 적게 벌면서 더 많이 배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때문에 택배 기사는 눈코 뜰 사이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김용섭, 「왜 속도를 고민해야 하는가?」 -

* 산업 재해: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때문에 근로자에게 생긴 신체상의 재해

2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관련된 속담을 인용하였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 ③ 조사 계획을 표로 제시하였다.
- ④ 예상되는 실험 결과를 추측하였다.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배달 산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빠른 속도는 경쟁력이 되었다.
- ② 배달 산업의 발달로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받는 당일 배달도 가능해졌다.
- ③ 우리나라 택배 기사들은 물건의 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과도한 노동을 한다.
- ④ 택배 시장이 과열되면서 더 비싼 가격을 내세운 가격 경쟁이 심해졌다.

22. ⑦~⑩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물이나 현상의 한 부분
- ② ㉡: 느린 속도
- ③ ㉢: 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이는 것
- ④ ㉣: 복잡하지 않고 간단함.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 가장 먼저 생존에 위협을 받을 종으로 북극곰을 꼽았다. 미국은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줄어들어 북극곰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하고, 2008년에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했다. ⑦ 멸종이란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된 것은 세계적으로 북극곰이 처음이었다. 북극곰이 지구 온난화의 첫 번째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미국의 멸종 위기종 보호법에 따르면, 한 동식물이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면 정부는 이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극곰이 멸종 위기종이 되면서 미국 정부는 북극곰의 멸종을 막기 위해 바다 얼음이 줄어드는 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만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9년 유엔기후변화회의’를 시작으로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량을 할당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⑧ 강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남종영, 「사라져 가는 북극곰」 -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바다 얼음이 늘어나고 있다.
- ② 미국은 2008년에 알래스카에 사는 북극곰을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했다.
- ③ 북극곰 멸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워야만 하게 되었다.
- ④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관심과 진정한 협력이 필요하다.

24. ⑦과 같은 설명 방법이 사용된 것은?

- ①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나뉜다.
- ② 발효 음식의 예로 김치, 간장, 된장이 있다.
- ③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학교에 지각을 했다.
- ④ 삼각형은 세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25. 문맥상 ⑧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코
- ② 그러면
- ③ 하지만
- ④ 그러므로